

오월어머니들의 40년 詩와 노래가 되다

너는
새하얀 날개에 싸여
투명하게 식어가고

너의 시간은 찰나의 봄날
슬픈 날개
찰리고 짓이겨져
은빛으로 부서진다

나의 시간은 영원한 고통
아픈 가슴 찰리고 짓이겨져
너는 나비가 되어라

여린 날개로
머뭇거리리는 미몽 같은
어둠을 찢는

너는
나비로 날아오라...

(김지원 '나비' 중에서)

어떻게 평범한 개인이 역사의 한복판에 선 투사가 됐을까? 40년 가까운 투쟁의 시간, 어머니들의 잃어버린 청춘은 무엇으로 보상 받아야 하는가?

1980년, 국가폭력에 의해 삶이 만신창이가 되버린 '오월 어머니'들의 가슴에는 피멍이 들어 있다. 오월 어머니들은 40년이라는 지난한 시간 동안, 숨이 멎을 듯한 고통과 슬픔을 견뎌냈다.

위의 '나비'라는 시에는 참혹한 순간순간을 인내하며 살아온 오월 어머니들의 한과 슬픔이 응결돼 있다. 그러나 절망과 어둠에만 침잠해 있는 것이 아니다. 인젠가는 "여린 날개로/ 머뭇거리리는 미몽 같은/ 어둠을 찢는" 그래서 "나비로 날아오"는 부활의 시간을 희망한다.

5·18 40주년을 맞아 오월 어머니들의 삶을 노래로 만든 가사집 '어머니의 노래'가 출간돼 눈길을 끈다.

이번 가사집은 (사)광주민족예술인단체총연합회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원과 협업으로 진행된 결과물로 오월 어머니들 15명의 40년 인생이 담겨 있다. 지난해 9월부터 광주전남작가회의 소속 여성작가(시인)들과 15명의 어머니가 1대 1 매칭으로



김점례 어머니(오른쪽)와 김지원 시인을 표현한 일러스트 <광주민예총 제공>

추혜성 어머니 등 모두 15명이다. 어머니들을 인터뷰 한 작가들은 고영서·박인하·이재연·조남희·강희진·유은희 시인 등 모두 15명이다.

책에는 구술 당시의 인터뷰 사진, 유족들의 유품 등 어머니들의 삶을 보여주는 사진들도 첨부돼 있다.

김지원 시인은 '김점례, 당신은 송고한 오월 어머니입니다'라는 에필로그에서 "자식을 낳아 내 삶과 뼈를 녹여 젖을 먹여 키우고 나날이 커가는 모습을 보고 뿌듯해하던 어머니로서 그녀의 고통을 상상할 수 없다. 가슴을 쥐어뜯으며 피를 흘리며 살았을 그녀의 세월이 아프다"고 말했다.

박형순 어머니와 인터뷰를 했던 이재연 시인은 "5·18을 직접적으로 체험하지 않았지만 어머니의 삶을 통해 당시의 역사가 체화되는 느낌이 들었다. 어머니들도 몸소 겪은 체험을 구술하는 과정에서 상흔이 치유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27일 오후 3시 아시아문화전당 내 옛 전남도청별관에서 책 나눴 북 콘서트가 열린다. 경과보고, 시낭송, 싸인 퍼포먼스, 극단 깍지의 '어머니의 노래' 축하 공연이 예정돼 있다.

행사장에 참석한 이들을 위해 책을 증정하는 나눔의 시간도 마련돼 있다. 아울러 행사장 한편에는 책 발간 기념으로 민예총이 제작한 '어머니의 안부를 묻는 일'은 광주의 안부를, 민주주의 안부를 묻는 일입니다'라는 안부엽서가 전시될 예정이다.

이번 모든 행사는 어머니들이 고령인데다 코로나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간결하고 짧게 진행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민족예술인단체총연합회

오월 어머니 15명의 삶

15명 시인이 시와 에세이로

가사집 '어머니의 노래' 발간

오늘 옛 전남도청서 북 콘서트

구술을 진행했다. 각각의 어머니의 이야기에는 모두 5편의 에세이와 1편의 시(노랫말)가 실려 있다.

오월 어머니들은 지난 2018년 옛 전남도청 원형 복원을 위해 투쟁을 했던 분들로, 5·18이라는 현대사의 비극을 온몸으로 겪은 역사의 증인들이다. 또한 5월 항쟁 당시 자식을 잃었거나, 남편을 잃었거나 아니면 다양한 트라우마를 겪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번 가사집 '어머니의 노래'를 기획한 이현미 민예총 사무처장은 "70-80세 고령이 된 어머니들의 삶이 치유의 삶으로 바뀌기를, 그리고 이제 투쟁은 우리가 할 터이니 조금은 즐거운 여성을 누리길 원하는 간절한 마음에서 작업을 하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대담에 참여한 오월 어머니들은 김길자·김옥희·김점례·김경자·박유덕·박형순(박관현 열사 누나)·박형순·원사순·이근례·이명자(6월 어머니집관장)·이향란·임근단·임현서·정동순

꼭두각시놀음, 공연이야 게임이야?

남도국악원, 금요국악공감 정상화... 29일 놀이꾼들 도담도담 초청 공연



국립남도국악원은 코로나19로 중단했던 금요국악공감 공연을 정상화한다.

국악원은 오는 29일 오후 7시 국립남도국악원 진악당에서 '놀이꾼들 도담도담'을 초청해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공연을 선보인다.

공연은 우리나라 민속인형극인 '꼭두각시놀음'과 컴퓨터비디오게임인 GTA(Grand Theft Auto)가 만나 새롭게 탄생한 관객 참여형 연희극이다.

남사당패의 여섯 종목 놀이 중 끝 놀이인 꼭두각시놀음은 '덜미'라고도 하는데, 이는 인형의 목덜미를 잡고 노는 데서 비롯된 말이다.

이번에 선보이는 '꼭두각시놀음'은 인형 대신 전통 탈춤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무대에 오른다. 그 인물들

이 컴퓨터 비디오게임의 주인공이 돼 관객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게임 캐릭터로 다시 태어나는 내용으로, 공연을 보는 동안 게임을 함께 즐기는 색다른 경험을 맛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놀이꾼들 도담도담'은 전통예술의 현대적인 공연화를 목적으로 드라마의 장르와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공연을 지향하는 단체다.

금요국악공감은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사전 예약으로 선착순 150명을 모집한다. 공연 시작 전후 진도 읍내와 국악원을 오가는 무료 셔틀버스를 운영해 관람객 편의를 도울 계획이다. 추첨을 통해 관객 10명에게 치킨쿠폰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국가 폭력에 저항해온 여성들을 말하다

광주여성재단 5·18 기념 29일 심포지엄

광주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김미경)은 오는 29일 오후 2시 광주여성가족재단 8층 강의실에서 5·18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날 열리는 심포지엄은 '국가폭력과 여성'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역사 속 여성들의 활동과 역할을 재조명하고 저평가되어온 여성의 역사를 새로 쓰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5·18민주화운동과 여성'의 발제를 맡은 김경례(전남대 사회학과 강사) 박사는 그동안의 역사가 기

독권중, 남성, 백인 중심의 역사였다고 전제하고 아래로부터의 역사, 여성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제주 4·3항쟁과 여성'의 발제를 맡은 현혜경(제주연구원 책임연구원) 박사는 4·3사건을 둘러싼 기억투쟁에서 여성과 어린이들의 목소리가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부마항쟁과 여성'의 발제자인 김선미(부산대사학과) 교수는 부마민주항쟁 과정에서 여학생 주도의 시위를 조직하고 광주지역과의 연대를 촉구하는 등 알려지지 않은 역사에 대해 이야기한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문학으로 기리는 곡성 저항시인 조태일

기념사업회, 6~7월 문학상 작품 공모

(사)곡성 조태일시인기념사업회가 '제2회 조태일문학상'을 공모한다.

조태일문학상은 유신체제 부당한 권력에 맞섰던 곡성 출신 죽형(竹坑) 조태일(1941~1999) 시인을 기리기 위해 지난해 제정됐다. 기념사업회와 곡성군이 주최하고 한국작가회의, 광주·전남작가회의, 창비, 문학들, 시인이 후원하며 상금은 2000만원.

접수는 오는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2개월 간이며 최근 2년 이내(2018년 6월 1일 이후)에 발간한 시집을 시인 본인이 제출하거나 추천위원의 추천을 통

해 응모할 수 있다. 접수는 문학들(광주시 동구 천변우로 487 문학들 내 제2회 조태일문학상 담당자 앞)로 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공모 요강은 곡성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상식은 오는 9월 곡성군에서 열리는 조태일 시인 21주기 문학축전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곡성 태안사에서 태어난 조태일 시인은 광주 서중, 광주고, 경희대를 졸업했으며 1964년 경향신문 신춘문예에 당선돼 문단에 나왔다. 시집 '아침선박', '곡토', '혼자 타고르고 있었네' 등을 펴냈으며 '시인' 지를 창간해 양성우, 김준태, 박남준 시인 등을 발굴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

개업·성업 안내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업무국 ☎ 062.220-0551



국수나무 광주용봉점(비엔날레)
북구 용봉동 1091-4(M-타워KB국민은행건물)
모든 메뉴 포장 및 배달 가능
직접 전화 및 배달앱 주문(배달의민족, 요기요)
☎ 062)526-5475, 010-8621-5959

장어 수산
북구 서암대로 88(신안다리앞)
무항생제 장어사용
포장배달·전국택배배송·선물포장해드립니다.
신용본위
☎ 062)412-1961, 010-5828-1961

마루전통한방차전문점
나주시 영산포로 184-1(영산포우체국앞)
심전대봉탕, 생화탕, 대추탕, 오미자차, 생강차
각종과일차, 구워낸 가래떡과 조청을 드립니다
☎ 061)333-6567, 010-7200-6567

(유)신 화 로 프
본점 : 나주시 청동길 244
PP로프, 안전로프, 형광로프, PE로프,
비닐, 천막, 안전장 전권취적자기도·소매
☎ 061)335-2301~2, 010-3429-6400

고 전 방
동구 공동 34-4(중앙초등학교 후문)
도자기,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
대표 김화중 ☎ 062)224-4869

동 양 철 학 원
동구 불로동 11-2(평화식당옆길)
사주, 작명, 개명, 신수, 궁합
택일, 개인지도함
☎ 062)224-7687, 010-2611-7687

남 문 냉 동
나주시 이창동 풍물시장2길 5-4
저온저장고제작·리, 영업용 냉장·냉동수리
에어컨 전문설치
☎ 061)333-2779, 010-3610-2779

미 가 한 우 명 가
나주시 풍물시장2길 54(영산포버스터미널옆편)
생고기, 생고기비빔밥, 떡갈비정식
☎ 061)333-0505, 010-4390-3366

퀵 타 로 카 드
지하철 금남로5가역 4번출구앞(신한은행옆)
궁합, 사주, 신수, 취직운, 택일, 작명,
운수판단, 인생상담
타로마스터 ☎ 010-3640-6429

신 신 예 술 의 집
동구 공동 예술의거리
기념품 전문 판매점
대표 서태석 ☎ 062)222-1936

만 福 당
동구 제봉로 184번길 5-9 (대인시장내)
골동품, 석물, 도자기, 민속품, 고가구
미술품 매도·매입합니다.
찾는 물품을 찾아드립니다.
☎ 062)959-0680, 010-4602-0680

석 당 화 랑
동구 공동 예술의거리
병풍, 액자, 족자, 표구일체
고서화 위탁판매
대표 이석재 ☎ 062)222-3118

김 동 일 쉼 프
동구 지호로42(지산2동사무소입구 마트앞)
갈비해장국, 갈비탕, 육개장, 곰창전골, 무침조림
예약주문 각종모인환영
☎ 062)228-1975, 010-9622-8938

우 리 뷔 페
남구 지석동 73-5번지
(포충사와 대촌동사무소 중간지점)
정성과 새로운 맛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회사·단체 장부 환영)
☎ 062)381-0066, 010-3085-0140

무 크 광 주 세 점 점
서구 상무대로 773, 세강아울렛2층 258호
회사한복 신상품대량입고
남·여 20~40%세일 (일부품목제외)
☎ 062)370-9258

한 성 꽃 화 원
나주시 나루로71(송월동 LG화학앞)
근조·축하화환, 동·서양란, 관엽전국배달
☎ 061)334-3200, 010-3623-6921

자 연 모 가 발 안 병 원 헤 어 샵
동구 롯데백화점옆, 금남전자상가 5층
자연모남여 가발 맞춤 전문!
중형가발을 자연모신상품으로 중모 리폼·대여가능
☎ 062)227-8084, 010-3608-2943

초 대 화 랑
동구 공동54-2번지(예술의거리)
동양화, 서양화 전문판매점
대표 임해택 ☎ 062)222-2516

개 성 전 통 한 방 상 계 탕
서구 치평동 케이원하이빌 1층
삼계탕전문점
포장가능합니다.
☎ 062)383-3454, 010-2106-0424

천 상 일 월 태 주 명
나주시 남외동33-3번지 남고문뒤편
종합, 사주, 신수, 택일 전문점
☎ 010-2617-3635

대 성 각 중 화 반 점
동구 무등로306-6(구시청뒤 도로변)
각종 전통 중화요리 전문점
전화주문시 신속배달
☎ 062)430-5342

박 당 화 랑
동구 공동 51-18번지(예술의거리)
한국화, 서양화매매 및 감정
대표 박환승 ☎ 062)222-6866